ECONOMY

‘고유가·고환율의 늪’…광주 물가 5년간 15.9% ↑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소비쿠폰, 소상공인에 활력을”
광주경총, 현명한 소비 촉구

광주경영자총협회는 23일 정부가 지급을 예고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시민들의 현명한 소비를 촉구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4개월 동안 지역화폐나 카드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며, 대중음식점·마트·편의점 등 일상생활 업종에서 폭넓게 쓸 수 있다.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광주경총은 회원사들이 밀집한 하남·평동·첨단지역의 상권이 장기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만큼, 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소비 효과가 돌아가도록 시민들이 의식 있는 소비를 해줄 것을 호소했다.

광주경총은 “쿠폰이 단순한 소비 진작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2021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추이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마트·식료품(26.3%), 대중음식점(24.3%) 등 생계 관련 업종에 가장 많은 지출을 했다.

광주경총은 향후 소비쿠폰 붐 조성에 앞장서며, 쿠폰 사용처 안내와 캠페인 등을 회원기업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 호남통계청, 최근 5년 소비자물가 변화 분석

2022년부터 오름폭 둔화
공공에너지 급등 여파
생활물가 18.2% ‘껑충’
채소 55.9% 상승 이끌어

고유가·고환율 등 영향으로 최근 5년간 광주지역 소비자물가가 1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광주 소비자물가 변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20204년까지 광주 소비자물가는 15.9%, 분기 평균 0.6% 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0.2%, 2020년 0.4%, 2021년 2.6%, 2022년 5.1%, 2023년 3.7%, 2024년 2.5%다.

호남통계청은 이번 자료를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을 고려, 3개 구간으로 구분해 물가 변화를 분석했다.

1구간은 저유가로 2019년부터 2020년 2분기, 2구간은 유가 상승기로 2020년 2분기부터 2022년 3분기, 3구간은 고유가 시대로 2022년 3분기부터 2024년 4분기까지다.

실제 국제유가는 2020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증가했고, 같은 해 3분기부터는 고유가 흐름이 지속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봤다.

또 미국 금리 인상 정책, 글로벌 정치·경제 불확실성 가중 등으로 고환율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영향으로 광주의 소비자물가는 2022년까지 치솟았고, 이후부터는 상승폭이 둔화했다고 호남통계청은 분석했다.

지역 소비자물가 중 상품은 19.1%, 서비스는 12.9% 뛰었다.

세부적으로 전기·가스·수도와 같은 공공 에너지가 35.4% 뛰며 전반적인 상승세를 견인했다. 농축수산물도 31.7%, 공업제품도 15.0% 각 상승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개인서비스가 20.0%로 가장 크게 상승했고, 집세는 3.0%, 공공서비스는 0.5%였다.

체감물가를 반영한 생활물가는 18.2% 상승으로, 분기 평균 0.7% 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식품은 28.0%, 식품 이외는 13.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선식품 물가는 36.5% 상승했는데, 신선어개는 18.0%, 신선채소는 55.9%, 신선과실은 36.2% 각 치솟았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은행 ‘톡톡자문단’ 현장소통 간담회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에 제도 개선 제안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본점에서 김은호 광주은행 부행장, 이길성 금융감독원 현장소통담당관, 강인근 은행연합회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현장 소통 톡톡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톡톡자문단 고객패널들은 간담회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금융상품 비교정보 플랫폼 구축, 모바일·온라인 대출 과장 광고 규제 강화, 대출 거절 사유 통지 의무화 등 금융 관련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

김은호 광주은행 부행장은 “이번 간담회는 고객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금융소비자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신세계 본관 1층 에이틀리에 팝업 매장에서 직원이 어린이 고객과 함께 피규어를 칠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나만의 화실을 즐기세요”

30일까지 에이틀리에 화실 팝업…체험미술 주목

㈜광주신세계가 체험형 드로잉 등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이색 팝업을 연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30일까지 본관 1층 이벤트홀에서 ‘에이틀리에 화실’ 팝업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드로잉카페인 에이틀리에 화실은 경주, 부산 등에서 어린이 체험미술을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이색 데이트 코스로 떠올라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팝업 행사장에서는 베어브릭 DIY 키링 세트, 캐릭터·원형 스마일 컨버스화, 베어·버니브릭 캐릭터 토이아트, 빈티지 LP바이닐·하트 미러 아트, 명화 2절 도안 페인팅을 체험해 볼 수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체험은 베어·버니브릭 캐릭터 토이아트로 곰이나 토끼모양의 피규어에 전용물감을 이용, 나만의 오브제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이다.

체험 시 앞치마, 팔토시, 모자 등 무료로 대여 가능하며 체험 시간은 90분이다. 체험 참여 후 SNS 팔로우 시 쁘띠 물감과 붓세트 또는 색연필 세트를 증정한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전남도는 ‘2025 파리 코리아 엑스포’에 참가해 315만 달러 수출협약, 1351만달러 수출상담을 했다.

전남도, 중소 소비재기업 유럽 진출 발판

파리코리아엑스포 참가 지원
10개 기업 315만달러 협약

전남도는 ‘2025 파리 코리아 엑스포(Korea Expo Paris 2025)’에 참가해 315만 달러 수출협약, 1351만 달러 수출상담을 하는 등 전남 중소 소비재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박람회가 유럽 경제의 중심지인 프랑스에서 케이(K)-산업을 직접 알릴 수 있는 글로벌 교류의 장이자, 최근 프랑스 내 확산 중인 한류 열풍을 활용해 전남 소비재의 수출 확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B2B와 B2C 복합형 전시회라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참가했다.

지난 15일까지 3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박람회에는 전남 10개사를 포함해 전국 144개 유망 소비재 기업이 참가했다. 유럽 168개사 바이어가 현장을 방문해 활발한 교류가 이뤄졌다. 전남 참가기업은 총 146건의 수출상담을 진행, 이 가운데 약 315만6000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 기업들은 김, 떡, 한복, 화장품 등 유럽 소비자 트렌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품을 전시해 현지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해조류 화장품을 출품한 ㈜이노플럭스가 151만달러 △천연염색 한복을 선보인 (사)한국천연염색숨이 139만6000달러 △떡류 및 떡볶이 소스를 출품한 농업회사법인㈜푸드파파F&B가 20만달러 △고흥 나물 간편식을 선보인 농업회사법인㈜담우가 5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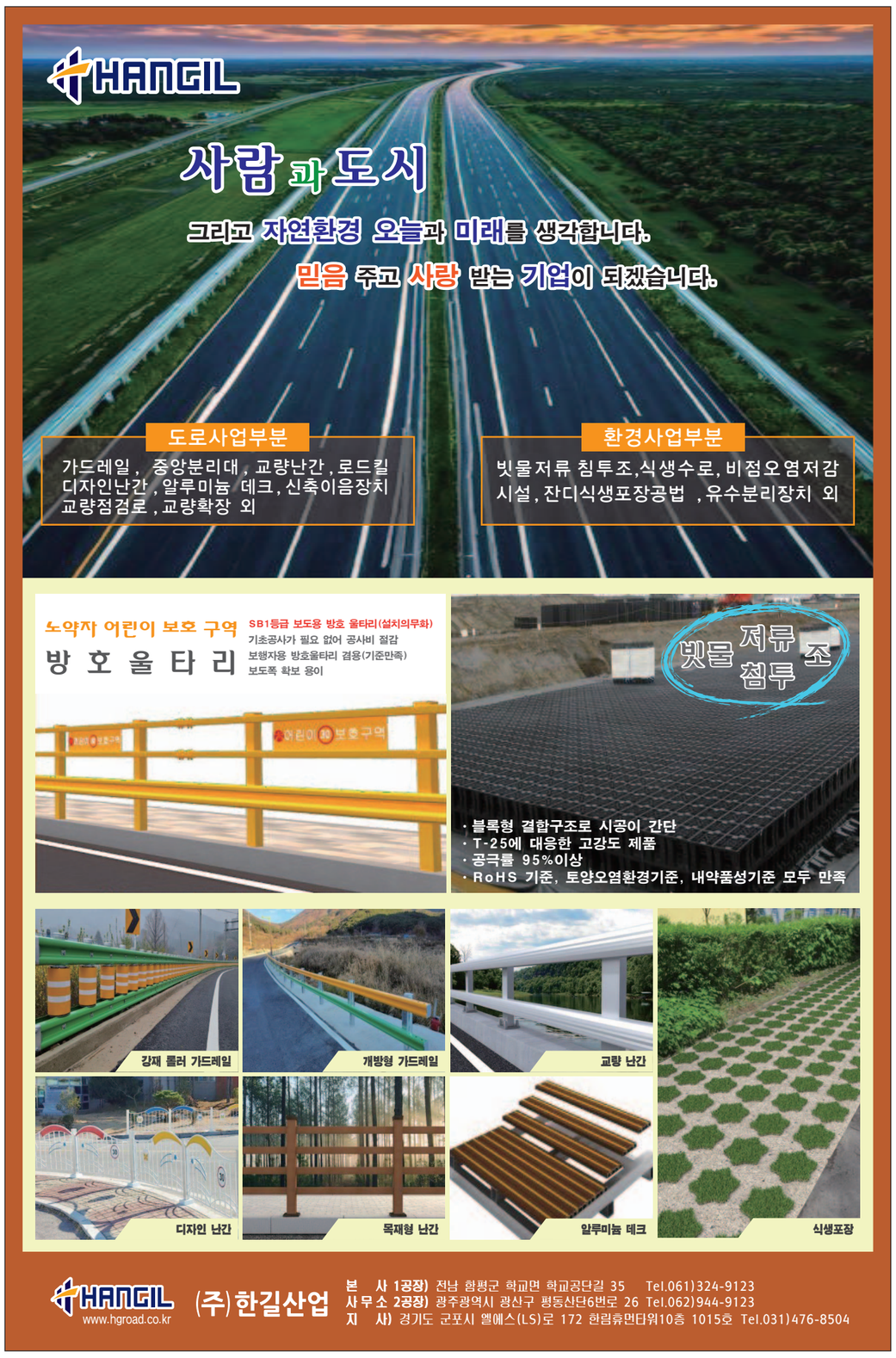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미래산업엑스포 부스 운영
광주FTA통상진흥센터 맞춤상담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운영중인 광주FTA통상진흥센터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광주미래산업엑스포’ 현장에서 수출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스가 설치되는 광주미래산업엑스포는 광주시가 주최하는 대규모 산업전시회로 모빌리티, 금형, 로봇 등 지역 미래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산업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상담부스는 지역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FTA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광주FTA센터 소속 송홍철 관세사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령, 협정별 FTA 적용 기준, 해외 통관 애로사항 등 수출 실무 전반에 대한 1대 1 맞춤형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행사 기간 중 자유롭게 부스를 방문할 수 있으며, 기업 실무자뿐 아니라 무역이나 해외시장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학생들도 전문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

광주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상담 부스는 전시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출·통상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창구가 될 것”이라며 “FTA 활용이 낯선 기업도 현장 방문만으로 전문가의 1대 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부담 없이 참여해 실질적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